

朝島의 史的 考察

林 墩

A Historical Study of JoDo(Busan)

Im Don

〈目 次〉	
I. 序 言	V. 結 語
II. 朝島의 沿革	參考文獻
III. 文獻上의 考察	參考寫眞
IV. 考古學的 考察	

Abstract

Jo-Do on which Korea Merchant Marine College is located is quite abundant in pre-historical and historical remains, such as shell-mounds and marks of a castle which is claimed to have been built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Im-Jin invas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the historical study of Busan locality.

In this paper, the writer makes an attempt to formulate the data which the writer gathered when the excavation was made and to trace the origin of the name of Jo-Do on the basis of the studies in this field.

I. 序 言

朝島는 釜山地方에 있어서 先史時代의 遺蹟인 貝塚을 비교적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 壬辰倭亂 當時에 築造되었다고 전하는 倭城址의 所在地로도 알려진 곳이다.

이 朝島에서 筆者가 1970年 貝塚을 처음 발견한 후 東亞大學校 博物館(1970年 6月 詞掘) 및 國立中央博物館의 調査班에 의해 그 貝塚發掘의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 朝島의 貝塚에 대한 정당한 歷史的 評價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채 하나의 課題로 남아있다. 이 課題를 수행하기 위한 前哨的인 作業으로서 本稿는 朝島에 대한 史的 考察을 試圖하리

는 것이다.

이 朝島에 대한 史的 考察의 作業은 釜山地方의 郷土史研究에 一翼이 될 것이며 先史時代의 遺蹟인 貝塚의 調査發掘과 아울러 이의 保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 아치섬(朝島)의沿革

朝島는 본래 絶影島의 屬島처럼 생각되어 왔다. 新羅時代에 있어서의 이 朝島 및 絶影島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관한 記錄이 三國史記 卷三十四 東萊郡條에 보인다.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 改名 今因之 領縣二 東平縣 本大甌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즉 東萊郡에는 屬縣이 둘이며 하나는 東平縣이라 하고 本來 이는 大甌縣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新羅時代에 있어 이 朝島와 絶影島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東平縣에 속하고 있었다.

그 후 高麗 顯宗(西紀1010~1031) 때에는 梁州(현梁山)에 屬하였으며 太宗5년에 다시 東萊縣에 속하였고 그 후 또 梁州에 속하였다가 世宗朝時代에는 東萊縣의 治所를 東平縣에 옮기기도 하였다. 이것은 東萊府誌 屬縣條의 다음과 같은 記錄에 잘 나타나고 있다.

“東平縣 在府南十里 本新羅大甌縣 景德王改名(東平)爲東萊郡 領縣 高麗顯宗時 屬梁州 本朝太宗五年 復來屬後復屬梁州 世宗朝 復來屬”

그리고 그 東平縣의 境域은 世宗朝의 慶南道地理志에 “東距東萊縣境餅橋六里 南距大多浦二十七里 西北距梁山郡境沙川十六里”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東은 東萊縣의 餅橋까지 6리 南은 大多浦(現多大浦)까지 27리 西北은 梁山郡沙川까지 16리의 지역이었다.

이 東平縣은 東萊縣에 合併되어 縣名이 없어지고 東萊縣 東平面으로 編入되었다. 그 年代는 確實치 않으나 世宗實錄地理 東萊縣條에

“屬縣 東平縣……今上十年戊申 屬還于縣”

이라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世宗 10년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東萊縣建置沿革條에

“世宗朝改稱僉節制使 後移鎮于屬縣 東平 未幾還舊治 後改縣令”

이라 하였으니 武官職에서 文官職 縣令으로 고친 것은 對日外交의 事務를 관장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보인다.

즉 東萊縣令이 釜山浦에 出入하는 倭使接待를 맡았던 것으로 미루어 世宗 10年 무렵에 東平縣이 面으로 東萊縣에 編入되었다고 보아진다.

韓末(大韓帝國末) 絶影島에는 各國의 租借地가 있었다. 그후 日帝의 侵略者들은 1913年 10月 30日 朝鮮總督府制令으로 府制를 發布 1914年 4月 1日에는 이를 實施하였다. 따라서 郡 面의 廢合으로 東萊郡(機張郡을 併合)을 釜山府 外에 있는 慶尙南道의 一部으로 만들고 釜山 沙中面

과 沙下面 카운데 치금의 大新洞, 富民洞, 芙蓉洞, 寶水洞, 富平洞, 新昌洞, 大廳洞, 南浦洞, 峨嵋洞, 土城洞, 南富民洞, 西面으로 부더 朝島를 합쳐 釜山府로 하였다.”

그 當時까지 朝島는 行政上 西面에 속하였고 沙中面東三洞으로 改編된 것은 釜山府改稱 當時였던 것이다.

따라서 絶影島가 行政區域으로 改編된 그 當時에 “朝島”라는 名稱이 생긴 것이다.

Ⅲ. 文獻上的 考察

A. 名稱에 關하여

아치섬(朝島)의 名稱의 由來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說이 있다.

(1) 아치섬은 큰섬(影島)에 對한 작은 섬이라는 뜻에서(「아치」 ‘아’는 버금아, ‘치’는 적다는 뜻)나왔다는 說과¹⁾

(2) 臥轎(와치)²⁾ 라는 말이 변하여 아치가 되고 또 아치가 釜山府行政改編으로 이칭 朝島으로 되었다고 하는 說이 있다.

前者는 國語方言學의인 해석이며, 後者는 歷史的 事實에 의한 해석이다. 이 歷史的 事實에 의한 해석³⁾은 다음과 같다. 즉 壬辰倭亂때 釜山에 集結하고 있던 倭軍이 洛東江下流一帶까지 出動하여 被害를 입히고 있다는 慶尙監司의 報告에 의하여 李舜臣 麾下의 水軍이 閉山島大捷을 치루고 난후 釜山浦로 進軍하였다. (1592年 9月 1日 : 忠武公 48세)이 때 우리 水軍이 ‘아치섬’에 상륙하여 이곳에 꽂아 놓은 倭軍의 旗幟를 늘리고 賊勢를 꺾음으로써 이후 臥轎島란 名稱이 나왔다고 한다.

B. 文獻上的 섬(島) 記錄에 關하여

우리나라 文獻에 남아 있는 섬(島)에 관한 記錄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① 「守令行祭所—海濱古智島陸之神 在縣東 相去十九里二百四十五步」

—慶尙道地理志(世宗 6年 7년에 調査케 하여 편찬. 이 地理志 편찬후 44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 海島條에는 絶影島란 記載되어 있음)

② 「絶影島 古智島 在縣南三十里 毛等邊島 在東平縣 南十五里 茶島 在縣 南四里」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山川條—(中宗朝)

③ 「古智島神祠 在縣二十三里 以石爲壇古禱兩有徵今廢」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祠廟條—

1) 韓日合併後 日帝는 1910年 9月 30日附로 朝鮮總督府官制및 朝鮮總督府地方官制를 發布하고 同年 10月 1日附로 이를 實施했다. 그리고 1913年 10月 30日附로 朝鮮總督府는 制令으로 府制(第7號)를 發布하고 1914年 4月 1日에 이를 實施했다.

2) 高斗萊; 「釜山의 地名 解考」(郷土文化第2號.) 1970. p. 38.

④ 「茶島 在府南七里 產雀舌 古之島 在府南三十里 毛等邊島 在東平縣南十五里 絕影島 在東平縣 南八里周邊三十里 有牧場 冬栢島 在絕影島 東北 五六島 薪島 在府南六海中 不知里數」

—東萊府誌 山川條(英祖 十六年, 1740年 편찬)—

「古智島神祠 在府南二十三里 以石爲壇古禱 雨有徵 今廢」

—東萊府誌 祠廟社稷條—

以上の 섬(島)에 관한 記錄中에서 東萊府誌 山川條에 〈冬栢島 在絕影島〉라 하여 동백도가 現朝島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前揭引用文에 나오는 古之島(古智島)를 或者는 거리 위치상으로 미루어 朝島라고 주장하나⁵⁾ 사실상의 섬(古之島)은 釜山鎮 앞바다에 있었고 日帝時代に 매축공사때에 없어진 것이다.⁶⁾

C. 아치섬과 椎木島(시히노기지마)의 관계

釜山府史原稿⁷⁾에는 椎木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折英島の 東南에 相接하는 한 섬을 古來로 對馬島人은 椎木島라 불렀다. 그러나 朝鮮의 文獻에는 冬栢島 또는 朝島라고 하였다.

그러나 椎木島를 朝島라고 하는 것은 잘못으로 草梁話集에 岩南의 〈松島〉를 朝島라고 明記하였다. 「冬栢島」가 正確하고 朝島는 잘못이다.」

日本人들은 朝島를 岩南의 松島로 規定하고 冬栢島를 椎木島라고 하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冬栢島는 어디인가? 釜山府史原稿에 의하면 「이 섬은 石崎은 北 一里에 있고 그 면적은 마치 도미(鯛魚)의 머리를 北東으로 하고 그 끝(尾)은 南으로하여 顛伏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 머리(頭)는 山頂에 있다. 섬의 높이는 378尺水 面に 돌기하고 峻崖가 海面에 임한다. 그 海邊은 水深은 七尋내지 九尋으로 그 끝(尾)은 점차 낮아 岩礁에 의해 絕影島와 連結되고 그 岩礁은 波瀑을 일으킨다. 또 淺灘이 있다. 冬栢島의 西側에서 擴延하기를 約1鍵이다. 冬栢島는 周圍 約一里半으로 西岸에 6~7의 人家가 있다. 또 草梁話集에 椎木島는 牧島에 속한다. 지극히 적은 섬이다. 이 섬을 冬栢島라고 한다. 牧島와의 사이에 小船二隻이 通船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볼 때 그들이 말하는 椎木島및 冬栢島는 아치섬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同上書 豊崎와 椎木島條의 〈朝鮮記〉에는 「慶長二年 七月 六日 秀吉의 胎代金吾中網詮에 居從하여 太田飛禪守等七人의 奉行들이 對馬의 豊을 發하여 七日 아침 釜山에 도착하고 釜山海에서 三里沖(おぎ)의 椎木島의 岸에 이르니 朝鮮의 大船數百隻이 釜山港을 막아 서고…」라

3) 金義煥; 釜山地方의 地名의 由來, 부산, 太和出版社, 1970, p. 117.

4) 金義煥; 「古蹟都市로서의 釜山」, (港都釜山 第7號,) 부산,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9, p. 317.

5) 高斗東; 前揭論文(郷土文化誌 第2號) 1970, p. 41.

6)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부산 嶺南印刷所, 1968, p. 30.

고 하고 있으며 또 「椎木島는 往古부터 海路의 要衝이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椎木島란 바로 朝島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壬辰倭亂때 椎木島에는 倭將 毛利輝元가 倭城을 축조하였다고 한다.

同上書 豊臣記에

- 一. 釜山浦 本城(一萬七千六百人)安藝宰相
- 二. 椎木島 端城

이 城趾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椎木島가 어느 섬인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 그런데 府史原稿를 作成한 編者는 그 著述에서 昭和2年(1927)7月 小田顧問(小田省吾)과 같이 椎木島를 조사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山下山上에 城趾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이 城趾를 「文祿慶長の 役(壬辰, 丁酉倭亂)釜山營의 毛利輝元의 축성에 의해서 된 소위 椎木島 端城은 이것이다」라 하였다.

「慶南의 城趾」(1934)에 따르면 椎木島端城의 所在는 絶影島의 東三洞에 있었다고 하고 있다.

아래 圖表에 보면 椎木島端城과 아울러 絶影島城이 나와 있으나 이 城은 現 東三國民學校 뒷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椎木島端城이 朝島의 倭城趾가 아닌가 한다.

(圖表) 釜山府 倭城趾 一覽

所在面里	城砦趾名	築城時期	築城者	現況	備考
凡一洞(町)	釜山城支城	文祿二年	毛利輝元	石壁存	
同	釜山本城	同	同	同	
同	せとぐちの城	同	同	石壁半存	
佐川町	開雲浦鎮城	李朝時代	未詳	若干遺趾存	未詳
水晶町	牧馬城	同	同	同	同
一家	天馬山城	不明	不明	同	同
東三洞	絶影島城	李朝時代	同	同	同
同	椎木島端城	文祿時代	毛利輝元	同	文祿役 水軍 공작對備

(慶南の城趾：慶尙南道 昭和九年 1934)

또 筆者가 直接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朝島 山頂에 倭城址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다고 판단된다. 즉 朝島山上의 日帝時代 砲台周邊에는 堡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또한 韓國海洋大學新築工事中에 (現 圖書館位置) 岩石과 더불어 築台의 破石으로 보이는 것이 發見되었고 部落이 헐리기 前에 家屋의 石材로 使用되던 것이 築城用 石台로 짐작되며 또 倭軍이 築造한 倭城址가 1920年頃까지에도 잔존하였다는 古老들의 口傳으로 미루어 보아도 椎木島가 아치섬이 아닌가 하는 推測이 可能하다.

Ⅳ. 考古學的 考察

(가) 1970. 4. 12日 國際新報 社會面에 筆者紹介로 朝島에 新石器時代의 櫛文土器貝塚이 存在한다는 事實이 報導된것에 動機가 되어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에서 이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1970年 6月初에 東亞大學校 博物館에 그 試掘 調査를 위촉한 바 있었다. 筆者도 調査員의 한 사람으로 參加한 바 있었다. 作業은 三個處에 試掘坑을 넣어 보았는데 그當時 堤防이 닿는곳에 1號坑을 거기서 南西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2號坑을 다시 本島 末端에 3號坑을 넣어 本島의 考古學的 基礎 內容이 대략 파악되었다. 3號坑에서 櫛文土器片이 多量出土된것고 2號坑에서 無文在器와 黑曜石片 鯨骨片等이 出土 되었으며 1號坑에서는 新羅土器 大壺의 口緣部 破片和 新羅土器의 高坏破片等이 出土되었다. 이 事實이 文公部 當局에 報告되어 朝島에 人類가 移住한 上限年代가 新石器時代라는 것이 學界에 알려지게 되었다.

(나) 1973. 7. 6~8. 11사이에 國立中央博物館調査班에 依하여 正式 發掘된 結果가 韓國考古學年報⁷⁾에 掲載되고 있어 그 一部를 紹介한다.

「朝島는 影島의 東쪽에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며 有名한 東三洞貝塚에서 마주 보인다. 이 곳의 貝塚은 50m 간격을 두고 A, B地區로 갈라져 있다.

〈A 地區〉

金海期の 貝塚이며 堆積은 1.6m 정도.

下層: 混礫腐土層, 無文土器, 金海式赤色硬陶, 有柄磨制石劍이 出土.

中層: 純貝層, 人骨, 鐵劍, 管玉, 水晶頸飾, 赤 및 灰青色硬陶, 三角形石鏃, 鐵鏃等이 出土.

上層: 混貝腐蝕土, 灰青硬陶, 赤色硬陶(若干), 高坏, 刀, 釣針등이 出土.

時代: 下層 B. C3—4世紀. 上層 A. D3世紀頃으로 推定

〈B 地區〉

A地區에서 西쪽 50m, 無文土器貝塚이며 堆積은 1.2m.

下層: 貝層, 圓底無文土器 出土.

中層: 10cm 두께의 混礫貝層. 不毛層

上層: 貝層, 無文土器 出土.

이 發掘은 無文土器에서 古墳前期에 이르는 文化段階를 層序列로 보여준 重要한 作業이었으며 특히 發掘者가 指摘하고 있듯이 이 곳의 赤色土器는 水平外反口緣을 가진 것으로 日本北九州 彌生前期(B. C3—2世紀)土器와 器形 胎土가 區別할 수 없을 정도로 같으며, 이 點은 金海期の 編年에 對해서 再考해야할 必要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人骨은 南韓에서의 이 時期的 完

7) 釜山府史編纂委員會; 釜山府史原稿(一), 釜山府 1963, pp. 204~208.

8) 韓炳三; 「釜山朝島(아치섬)貝塚發掘」(金元龍編 韓國考古學年報 [.] 1973, pp. 20~21.

全遺骨の一例로서 앞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이 時代研究의 좋은 資料가 될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學界는 無文土器文化에서 金海土器文化로 넘어가는 過程 즉 過渡期의 文化를 밝히기 위하여 많은 發掘作業이 있었으나 만족한 結論은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朝島 A地區 最下層은 考古學 研究上 重要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地區 最下層에 대해서는 앞으로 赤色土器와 彌生土器와의 比較 검토가 이루어지면 明白해지겠지만, 이 A地區最下層은 金海期文化보다 훨씬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從來 紀元前後 3世紀까지 洛東江地方에서 發達한 金海文化가 古代國家成立의 母體가 되었다 하여 原三國時代 또는 最初의 發見 地名을 단 金海時代라고 한 時代區分은 再考해야하며 合理的인 時代區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中層은 純 貝殼層인데 東枕으로 伸展仰臥葬의 人骨과 鐵劍, 管玉과 水晶으로 연결된 목걸이가 出土되었다. 이러한 鐵劍은 細形銅劍 文化末期에 登場하는 것인데 細形銅劍과 함께 使用되고 있었다는 것이 江西郡臺城里 土墳墓 遺蹟에서 證明된바 있다. (細形銅劍文化末期— 紀元前後初期鐵器時代末期에 해당) 이밖에 無莖鐵(석촉) (大田市槐亭洞出土: 細形銅劍과 함께 出土된 石鏃과 똑같은 形態) 鐵鏃(시베리아「미누신스쿠」系(Siberia Minusinck) 青銅鏃: 兩翼鏃形式) 上層은 高杯類, 鐵製 낫, 칼, 낚시, 바늘, 이層은 古墳時代로 넘어 가기 직전 段階의 것으로 보인다. A地區는 大體로 層序 關係로 보아 B, C, 3—4世紀로부터 A, D, 3世紀까지 形成된 遺蹟으로 추정되며 歷史적으로는 三韓時代에 해당 된다고 본다.

B地區는 櫛文土器 遺蹟인데 그 大部分이 攪亂되고 一部分이 保存되어 있다. 貝塚의 두께는 1.2m程度이고 地表60cm 밑에는 貝殼層이 있었다. 이 貝殼層은 그 中間에 10cm두께의 礫石貝殼層(混礫貝層)을 두고 2個의 層으로 分離되어 있었다. 이러한 現象은 東三洞貝塚에서도 볼수 있는데^{9) 10) 11)} 이는 櫛文土器 以前에 또다른 土器文化가 存在하였을 可能性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그 後 筆者¹²⁾는 地表調査를 한 바 있는데 그當時 採集된 遺物로서는 赤色軟質性土器와 灰青色硬質土器와 櫛文土器文化期에 屬하는 有文土器類와 無文厚肉土器 그리고 紅陶 그外 石器片 黑曜

9)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1973., pp. 58~59.

東三洞의 無文土器는 後代의 無文土器와는 다른 알이 若干箇는 듯한 胎土로써 만들어진것이나 石粒의 加入은 顯著하지 않다. 器形으로는 半卵形圓底土器로써 口緣部에 押捺斜線文을 둘러 櫛文土器와의 接觸을 聯想시키는 것도 있으나 花盆形의 平底器上部에 鑿이 曲線인 鉢形土器를 連結하여 日本의 中期櫛文土器의 器形과 一脈 相通하는 特殊形도 있고 角杯形土器도 나왔다. (先櫛文土器期)

10)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誌(上), 釜山市, 1974, pp. 212~214.

最古의 土器文化에 있어서 有文의 圓底土器와 平底의 無文土器가 共存한다는 것은 土器製造의 테크닉으로 보거나 또는 韓國의 土器發達史로 보거나 간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11)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 東京, 河出書房, 1972, pp. 46~49.

その上の層(C₂)からは 無文土器と 櫛文土器がともに出土した。その上の層(C₁)からは かつて 無文土器片が 櫛文土器片より 多いといふことは 上のような 推定に 混亂をまたらすと いえよう。

石 骨角器 各種貝類 등이었다.¹³⁾

黑曜石은 東三洞貝塚와 누룩나무굴貝塚 遺蹟에서 出土되는것과 같고 隆線文土器 爪文土器에 동반하여 黑曜石製의 細石끼이 出土되었다. 特히 日本九州地方의 鹿兒島 佐賀 長崎縣等に 黑曜石 產地가 있고 舊石器時代의 細石器에는 黑曜石 製品이 많다. 北九州一帶에 發見되는 黑曜石 原石供給地는 朝島와의 文化交流를 意味하는 것이며 釜山影島區東三洞貝塚 出土의 隆起施文土器는 日本의 曾畑土器文化와 禰式土器文化와의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또 이 隆起文土器는 韓國에서는 釜山附近의 海岸地帶에 限하고 東三洞出土 黑曜石은 日本佐賀縣西有田町腰岳産의 黑曜石과同系¹⁴⁾라 하며 黑曜石의 交易圈도 생각할 問題의 하나가 되겠다. 이 問題研究에 있어 朝島가 先史時代交易 中心地로서 하나의 重要 據點이 아니었던가 한다.

이 遺蹟은 오랜 歲月속에 攪亂된 곳도 있었으나 比較的 正常的인 遺蹟이었으며 南西側의 遺蹟(櫛文土器)과 거기로부터 約10~20m간격의 無文土器遺蹟은 若干 攪亂된 것 같은 痕跡도 보였다. 또 이 遺蹟은 櫛文人(B地區)들의 生活이 始作되어 그후 다시 無文土器人들이 原始農耕과 漁業에 從事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과 日本과의 交易으로 東三洞을 中心으로 하는 釜山先史文化圈을 形成한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후 또 다시 金海期人들이 들어 왔었다는 것으로 推測된다. 이 時代는 初期鐵器時代(A地區)로서 그當時 進歩된 文化를 吸收하여 바다를 건너 朝島에 移住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影島의 瀛仙貝塚, 靑鶴洞貝塚, 누룩나무굴貝塚, 上里貝塚, 東三洞貝塚에서도 朝島와 같은 文化內容이 엿보이므로 앞으로 精密調査의 必要性을 提言하는 바이다.

(다) 釜山地方의 遺蹟別土器片熱分析法의 適用에서¹⁴⁾ 이미 論한바와 같이 「熱分析法은 示差熱分析(DTA)과 熱重量分析(TGA)의 두 分析法을 通하여 櫛文土器와 無文土器의 總實測點의 plot와 平均值및 標準偏差를 나타내는 것이다」 無文土器를 出土地別로 羅列하면 東三洞, 多大浦, 東三洞, 上里, 누룩나무굴, 朝島, 東萊 順位로 된다. 또 櫛文土器의 強熱重量減少率과 年代와의 相關關係는 알 수 있으나 土器의 絕對年代測定法이 適用段階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櫛文土器(¹⁴C約 5,000~3,000 Y. B. P)

貝 塚 名	分 析 點	數強熱重量減少率
多 大 浦	8	10,866 ± 5,086
東 三 洞	11	13,071 ± 3,102
朝 島	6	10,107 ± 1,711

炭素含率 7,600, 6,736%(炭化物含)

12) 拙稿「아치섬 貝塚略報」부산교육 166호, 1971, p. 143.

13) 江坡輝彌; 新版考古學講座 第9卷, 東京, 雄山閣, 1971, p. 276.

14) 拙稿; 「釜山 先史期 土器片에 대한 熱分析法의 適用」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9輯, 1974, pp219~229.

日本遺蹟出土土器와의 比較, 文化의 直接的인 交流, 相互文化의 受授, 同定の 比較등을 考古學分野에 導入하여 새로운 問題研究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 強熱重量減少率을 나타낸 土器順序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無文土器(14C約 3,000~2,000 Y. B. P)

貝 塚 名	分 析 點 數	強 熱 重 量 減 少 率
東 三 洞	28	(1,200℃ 30%) 10,858 ± 2,658
多 大 浦	10	10,644 ± 2,796
東三洞上里	11	10,173 ± 1,814
누룩나무골	18	8,962 ± 3,050
朝 島	16	7,839 ± 3,545
東 萊	11	4,672 ± 3,162

V. 結 語

以上으로 朝島の 歷史와 그 名稱, 그리고 先史時代의 遺蹟인 朝島貝塚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文獻上 朝島에 대한 직접적인 記錄은 전혀 없고, 다만 古之島 또는 古智島란 記錄으로써 朝島를 古之島(古智島)라고 주장하는 說이 있으나 精確한 것은 못된다.

日本人이 말한 椎木島는 多栢島 즉 現 朝島를 가리킨 것으로 추단된다. 그들이 말한 椎木島의 위치가 바로 現朝島의 位置와 一致하기 때문이다. 또 椎木島端城의 城趾는 朝島에 築造된 倭城趾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朝島는 日本과의 交易에 있어서 海路의 要衝이었으며 또 先史時代의 遺蹟및 遺物을 통해 볼때, 이곳이 倭와의 交易이 이루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前述한 考古學的인 考察에서 이미 살펴진 바와 같이 朝島에 集團移住한 先史人들은 東三洞 先史人들과 系統을 같이하는 兪越의 新石器人이었으며 이는 시베리아에서 퍼져나온 古시베리아族의 一派와 海洋一族이 共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靑銅器時代 末期경 이곳에 移住해 온 一派는 鐵器文化를 併用했으며, 磨製, 石製, 紅陶등의 出土로 보아 初期古墳時代의 遷渡期인 初期鐵器時代로 移行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金海土器는 南韓在來의 無文土器에 새로히 鐵器와 함께 들어온 中國式灰陶의 技術이 加味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打捺文硬陶, 繩帶文土器, 格文土器를 包含한 土器의 色은 紅褐色, 灰青色이며 器形은 高杯, 크게 外反한 口緣, 牛角形손잡이, 시루(甑)등의 出土는 이들이 農耕生活에서 米穀을 常食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鐵器의 日常道具化를 端的으로 보여주는 鐵刀子(鹿角의 鬚를 잘라내어 칼자루로 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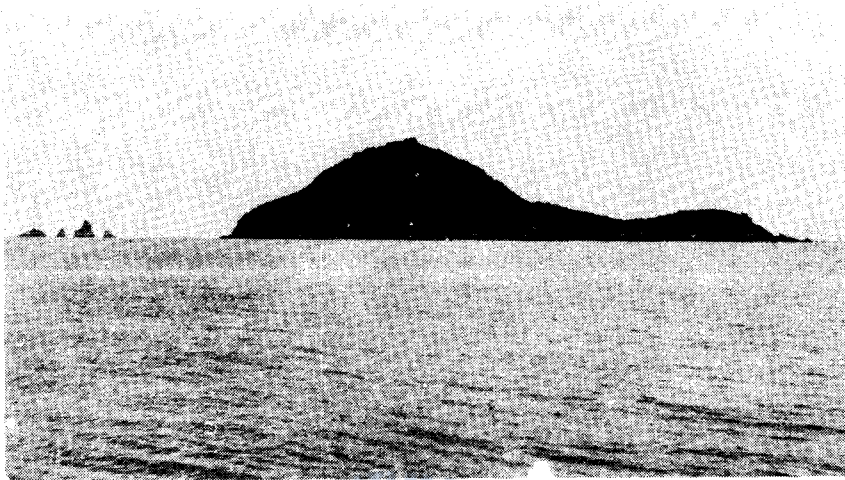
것)의 出土가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文化는 紀元前 南韓의 文化形成의 基盤이 되었으며 弁辰 伽倻文化를 거친 새로운 文化와 그 文化圈研究에 貴重한 資料를 提供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朝島의 史的考察을 目的으로한 本稿는 하나의 試論에 불과한 만큼 未洽한 資料나 筆者의 短見에 대해서는 諸賢의 叱正있기를 기다려 앞으로 補完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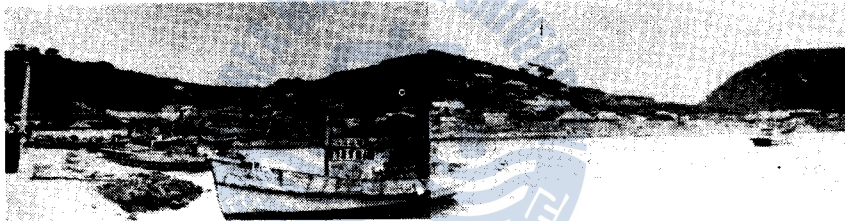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 金元龍：韓國考古學概說，서울，一志社，1972.
 金元龍：韓國考古學年報 I，서울대학，1973.
 金廷鶴：韓國의考古學，東京河出書房，1972.
 千寬宇編：韓國史大系，서울 三珍社，1972.
 民族文化 추진회：東國輿地勝覽Ⅲ，서울 민중서관，1969.
 道誌編纂委員會：輿地集成，慶尙南道，1962.
 國史編纂委員會：輿地圖書，서울 探求堂，1972.
 金富弼：三國史記，서울 慶曹出版社，1973.
 朝鮮總督府(中樞院)：慶尙道地理誌，續撰地理誌，1938.
 震檀學會：韓國史，서울 乙酉文化社，1970.
 釜山市史編纂委員會：港都釜山 1號，7號，釜山市，1967.
 釜山略史：釜山市，1968.
 釜山市誌：釜山市，1974.
 민족문화 추진회：李朝實錄(5)，서울 探求堂，1972.
 慶尙南道：慶南의城址，釜山 上田印刷所，1934.
 高斗煥：釜山の地名解考，(鄉土文化誌第2號)，1971.
 金義煥：釜山地方의地名의由來，釜山 太和出版社，1970.
 釜山府：釜山府史原稿，1936.
 江坂輝彌：新版 考古學講座 第9卷，東京雄山閣，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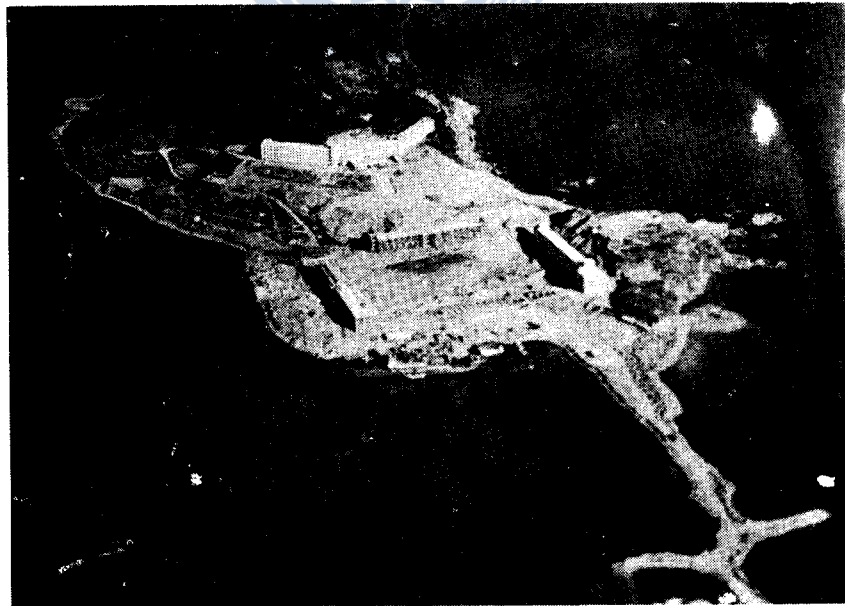
參考寫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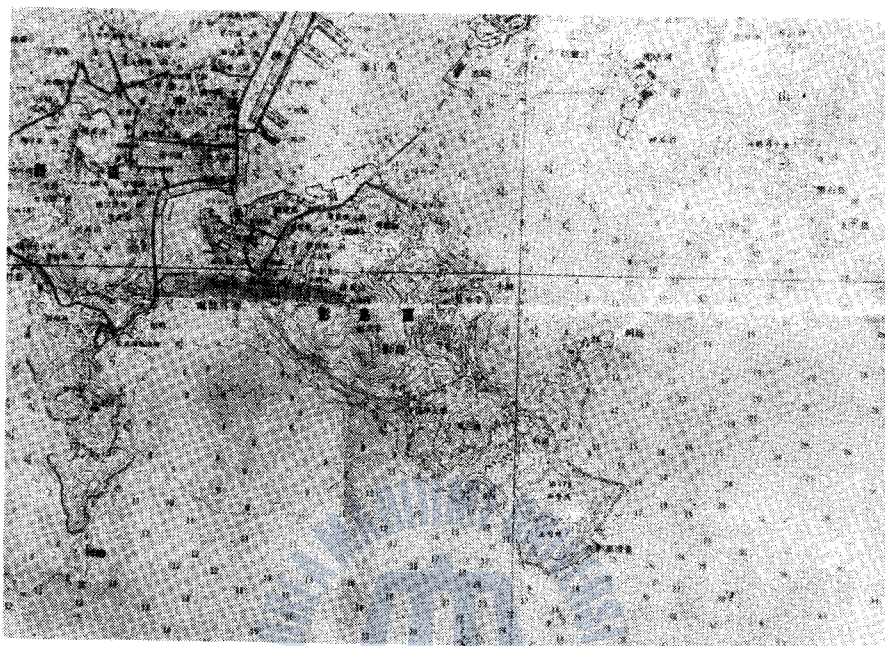
① 朝島全景(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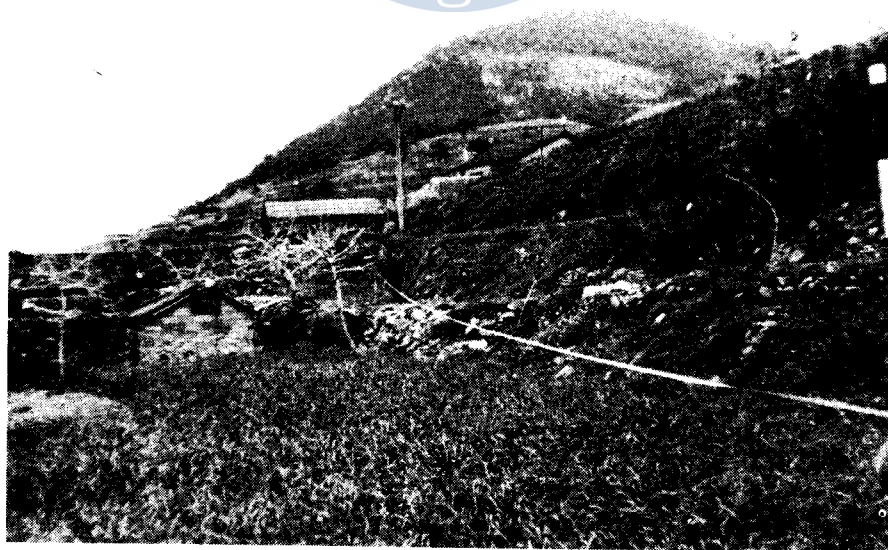
② 舊朝島(1970)



③ 近朝島(1974)



④ 朝島位置圖



⑤ 西側部落



⑥ 東側岩壁



⑦ 南側海岸



⑥ 遺蹟全景



⑦ 遺蹟發見時(1970. 4)



㊸ 試掘時(東亞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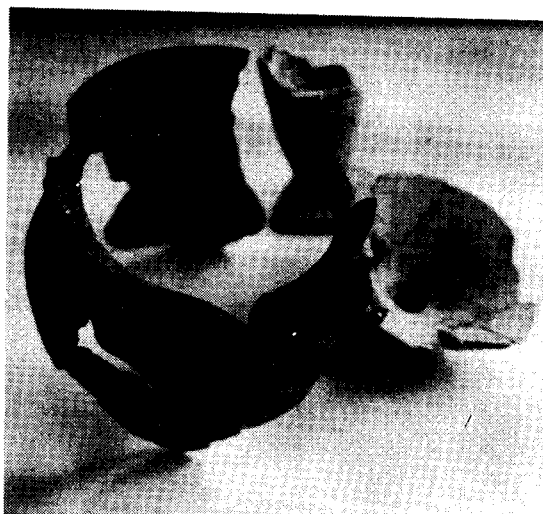
㊹ 國立中央 博物館發掘時



⑫ 調査時(1974)



⑬ 人 骨



⑮ C. 金海期斗 赤色土器



06 黑曜石 및 鐵器

1945



07 아치산 山峰의 砲台 및 堡壘跡



48 築石破石

1945



49 全景(1974. 12. 25 現在)

